

한국의 토론 문화와 토론 교육

박재현*

〈차 례〉

- I. 문제 제기
- II. 의사소통에서의 문화적 가치 체계
 - 1. 인간과 자연
 - 2.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 3. 개인과 집단, 권력, 모호성, 성(性)
- III. 한국 토론 문화의 양상
 - 1.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
 - 2. 타당성이 약한 논거의 사용
 - 3. 개인적 권력 사용
 - 4. 내용 비판보다 사람 비난
 - 5. 사적 의견과 공적 견해의 혼동
 - 6. 토론 규칙의 경시
- IV. 토론 교육의 내용: 태도 교육을 중심으로

I. 문제 제기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대화나 토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

* 수원대학교 강사

고 양편의 주장이 대립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행하기 위해서 토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각으로 각종 언론이나 교육의 현장에서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어교육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교육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문화 교육적 시각에서 토론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토론 교육이 단순히 토론 절차에 대한 지식의 제시와 토론 과정상 오류의 교정에 한정되지 않고, 토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토론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토론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설계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토론 원리의 기저에 존재하는 토론의 문화적 변인들을 규명할 것이며, 이러한 토론의 문화적 변인들이 토론의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실제 토론 자료를 통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토론 교육에 대한 문화 교육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한다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토의의 일종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자와 반대자가 각기 논리적인 근거를 발표하고 상대편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말하기의 한 형태'라는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토의와는 명확히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협의의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은 토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토론은 이미 도출되었다고 주장되는 긍정 측의 결론과 부정 측의 결론 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밝히기 위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토의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의 일치를 얻으려고 서로 협동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이라면, 토론은 의견의 일치를 구하려는 점에서 토의와

같지만, 쟁점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으로 갈려서 대립을 전면에 드러내는 점이 다르다(이용백·이주행, 1993).

토론은 보통 토의 참석자들 간에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작된다. 토론의 참석자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대립하는 양측은 어느 편이 옳은가를 가리기 위해서 제삼자의 판정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립하는 양측이 어떤 논제를 '긍정 측'과 그 논제를 부정하는 '부정 측'으로 나뉘어,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공평한 심판 앞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논쟁을 벌이고, 심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자와 패자를 가리게 되면, 대립하는 양측은 '토론'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김광수, 1991).

토론은 이러한 본질적 속성에 따라 '싸움에 필요한 힘'의 경쟁이고 이 힘은 철저하게, 내용적으로는 '논리'의 틀 안에서, 방법적으로는 '규칙'의 틀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속성은 특정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토론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형식에 부합하고, 문제 해결이라는 토론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때 '성공적인 토론 수행' 그리고 '바람직한 토론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하게 되는, 의사소통 방식의 여러 변인들에 대한 가치관과 시각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다양한 양상의 토론 문화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토론의 성공 기준을 '정해진 절차와 규칙의 준수'라는 하나의 척도로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을 국어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지향하는 토론 문화의 수준을 그 형식적 틀에 의존하여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토론 교육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 해당 문화의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과 토론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의사소통 방식이 상충하는 단면들을 찾아내려는 작업과 그 단면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의 장에서 각각의 의사소통 변인들의 가치가 지향해야할 방향이 토론 교수 학습의 밑그림으로 그려진다면, 학습자가 토론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고 여러 사회·문화적 토론의 상황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의사소통에서의 문화적 가치 체계

토론의 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적 변인들을 도출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1. 인간과 자연

문화적 가치 지향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는 Kluckhohn & Strodtbeck(1961)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인간 사회가 직면하는 보편적 문제로서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시간, 활동, 관계'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Condon & Yousef(1975)는 Kluckhohn & Strodtbeck(1961)의 논의를 발전시켜 6개의 범주에 따른 24개의 문화적 가치 지향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아 (연령, 성별, 활동) 2. 가족 (관계 지향, 권위, 역할 행동, 이동성) 3. 사회 (사회적 상호성, 집단 소속감, 중개자, 공식성, 특성) 4. 인간 (이성, 선악, 행복, 변화) 5. 자연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에 대한 인식 방법, 자연의 구조, 시간의 개념) 6. 초자연 (인간과 초자연의 관계, 생명의 의미, 섭리, 우주 질서에 대한 지식) |
|--|

〈표1〉 Condon과 Yousef(1975)의 문화적 가치 항목

Condon & Yousef(1975)의 모델은 토론 참여자와 그들의 상호작용은 물론 토론 주제에 대한 문화적 가치 체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면, 자아, 가족, 사회의 범주에 속하는 자아의 개념, 관계 지향, 권위, 역할 행동, 사회적 상호성, 집단 소속감 등의 속성은 토론 참여자와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적 가치 체계를 이해하는 데, 또 인간, 자연, 초자연의 범주에 속하는 선악, 행복, 인간과 자연의 관계, 생명의 의미 등은 특정 토론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 문화적 가치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문화의 특성에 따라 언어 표현 방식을 구분한 대표적인 논의는 Hall(1976)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에 대한 것이다. 그는 두 범주로 문화적 차이를 구분하고, 고맥락 문화의 국가로는 중국, 영국, 프랑스, 가나, 일본, 한국, 베트남을, 저맥락 문화의 국가로는 독일, 스위스, 미국 등을 예로 들었다. 두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의 표현 형태인데 '직접 언어 표현 방식'과 '간접 언어 표현 방식'으로 구분된다. 저맥락 문화의 사람들은 직접 언어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고맥락 문화의 사람들은 간접 언어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

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보통 이러한 구분을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Hall(1976)은 고맥락 문화에 한국, 중국, 일본과 영국, 프랑스를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이러한 틀은 동서양의 언어 표현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언어 표현에 대한 문화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속체의 좌우측 단을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각각의 집단은 특정 상황에 따라 언어 표현의 연속체 속에서 고정되어있지 않은 특정 좌표를 갖게 된다. 토론의 의사소통적 변인을 해석함에도 이러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언어 표현 형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 언어 표현 방식 (저맥락 문화)	간접 언어 표현 방식 (고맥락 문화)
상황적 맥락이 중시되지 않는다.	명확한(explicit) 언어 메시지가 중시되지 않는다.
중요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언어 메시지에 의해 전달된다.	중요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맥락적 단서(장소, 시간, 상황, 관계)에 의해 전달된다.
자기 표현, 언어적 유창성, 용변 등에 가치를 둔다.	상호작용에서 침묵을 유지하거나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 등과 함께 '조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관점을 타인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핵심을 돌려 말하고,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표2〉 Hall(1976)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언어 표현 방식

Chung(1992)은 Hall의 논의를 발전시켜 두 문화의 특징을 7가지로 다시 정리하였다. Hall이 언어 표현 방식의 맥락적 양상에 주목한 데 비해 집단 의식, 대인관계 등까지 논의를 확장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저맥락 문화	고맥락 문화
직접적인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의미를 명백히 드러낸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개인주의에 가치를 둔다.	집단 의식에 가치를 둔다.
일시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인 대인 관계의 형성과 확립을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단선적인 논리를 강조한다.	나선적인 논리를 강조한다.
직접적인 언어 표현에 가치를 두고,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하는 데 능숙하지 못하다.	간접적인 언어 표현에 가치를 두고,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하는 데 능숙하다.
생각을 표현하는 데 '논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을 표현하는 데 '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경향이 있다.
정교하게 구조화된 메시지, 상세한 기술, 단어나 기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하고, 모호하고, 비맥락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표3〉 Chung(1992)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분류

3. 개인과 집단, 권력, 모호성, 성(性)

Hofstede(1983, 1984)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일관된 4개의 차원을 규명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관한 것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와 개인적 성취에 가치를 둔다. 자아 개념, 자아 존중, 자아 정체성, 자아 인식, 자아상, 자기 표현 등이 중시되며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취급되고 개인의 목표가 집단의 목표보다 우선시 된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는,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자아 개념이 별로 중시되지 않는, 보다 견고한 사회적 구조로 특징화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개인이 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따르고 상호의존적이도록 기대되어진다.

두 번째 차원은 권력 거리(Power-Distance)로서 대인 관계나 집단 내에서 권력 분포의 불균형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 관한 것이다. '고-권력

거리' 문화에서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수직적·계급적 구조가 존재하는 권위주의적 특성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은 불평등하거나 상보적이며 이러한 차이는 연령, 성별, 세대, 지위 등의 속성에 의해서 극대화된다. 반면에 '저-권력 거리' 문화는 수평적인 사회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연령, 성별, 지위, 역할 등에 의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개인적 차이는 부각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덜 형식적인 성향이 있다.

세 번째 차원은 모호성 회피에 대한 것으로, 문화에 따라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와, 모호성과 불확실성과 관련된 언행에 대해 보다 참을성을 지니는 경우로 구분된다.

네 번째 차원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것이다. 남성적 문화에서는 남자가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야망, 공격성, 성취, 경쟁 등의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그로 인해 의사소통 방식은 비교적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여성적 문화에서는 성별에 따른 역할이 평등하고, 애정, 동정, 감정, 민감성 등의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비언어적 단서에 대한 파악에 능숙하고 모호한 상황에 대한 참을성이 강하다.

Hofstede(1983, 1984)가 주장한 4개의 차원은, 의사소통 양상의 문화적 해석을 표면적 차원에서 근원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토론이 집단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점, 힘(권력)이 중시되고 공격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토론 문화의 분석에 앞의 논의에 비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한국 토론 문화의 양상

앞에서 논의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한국의 토론 문화의 양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분석의 자료로 삼은 것은 TV토론이다. 물론 토론이 구두로만 진행되는 것도 아니지만 의사소통 문화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만큼 토론 참여자간의 역동적인 공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라는 판단에서 TV토론을 분석의 자료로 선택하였다. 즉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토론의 범위는 인터넷과 신문에서의 토론 등 구두로 진행되지 않는 형식은 제외하고 TV토론에 한정한다.

물론 TV라는 특정 매체가 갖는 특성이 존재하며 이는 분명히 토론의 문화적 변인들의 작용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TV토론이 일반적인 토론에 비해 갖는 매체적 특성으로는 첫째, 상대방 토론자와 더불어 토론 대화에서의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방청객이나 시청자들에게도 '자기 의견의 정당함과 상대방 의견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토론의 입론과 반론이 특정 여론 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박용한, 2002). 둘째, 시청률에 영향을 받으므로 논제 선정부터 진행 과정까지 문제의 해결보다는 흥미 위주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¹⁾.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TV토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동민(1997)은 패널 선정의 투명성 여부, 과열 경쟁, 과거 지향적이고 흥미 위주로 흐르는 단답형 질문, 본질에 접근해 가지 못하는 변죽울림 등의 4가지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TV토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인들에 대한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TV토론의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해석 시에 명확히 인식하고 본질적인 논의에서 벗어난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

1) TV토론의 시청률은 분당으로 산정되며 보통 7% 정도에서 최대 12% 정도이다(김학수, 2001).

면 각 방송사마다 참여자에 의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방송사가 준비한 영상과 해설을 마치 객관적인 시각에서 준비한 것처럼 방영하는데, 이는 물론 배경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친절로 여겨 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의 진행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SBS를 제외하고 MBC, KBS1, KBS2 각 방송사의 대표적 토론 프로그램 3개를 선정하였다. 특히 논제도 '이라크 파병'으로 찬반에 대한 참여자의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은 방송사가 제시한 동영상 자료와 전사 자료를 동시에 검토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순서	방송사	프로그램	제목	방영일	참여자
1	MBC	100분 토론	이라크전 파병, 우리의 선택은	2003. 3. 27.	사회자(손석희) 참여자 6명 KW(개혁당 국회의원) KY(한나라당 국회의원) CY(국방부 정책실장) PS(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PG(전 유엔대사) LC(○○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	KBS1	생방송 심야토론	이라크戰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	2003. 3. 29.	사회자(길종섭) 참여자 6명 CW(한나라당 국회의원) AY(한나라당 국회의원) KG(민주당 국회의원) LM(민주당 국회의원) KT(국방연구원 연구위원) OC(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3	KBS2	100인 토론	이라크전 파병과 한미관계	2003. 3. 16.	사회자(정진홍) 참여자 4명 KJ(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WS(민주당 지구당 의원장) LJ(대사) HS(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	------------	---------------------	-----------------	--

〈표4〉 분석 대상 자료

연구 과정과 결과로는 한국의 토론 문화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3개의 분석 자료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현상과 그에 따른 사례들을 2장에서 설명한 이론적 관점을 토대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여러 현상과 사례들은 문화적 관점에서 6개로 범주화가 가능했는데, 한국의 토론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인으로는 감정과 논리, 논거의 타당성, 힘의 원천, 비난과 비판, 집단주의, 질서와 규칙의 여섯 가지였다.

6개 변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국어교육적 목적에 따라,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가 토론의 기본 원리와 상충하여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의 목적은, 단순히 한국 토론 문화의 단점을 유형화하여 단정짓고 이에 대한 교정을 교육적 적용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데 필수적인 다양한 요인들의 축 선상에서 특히 토론의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 토론 문화의 현재 좌표를 지적하여 토론 교육이 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특정 변인들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

토론은 웅변의 경우처럼 '누가 더 관중의 지지를 받는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 더 논리의 지지를 받는가?'를 겨루는 것이다. 즉 토론의 내용, 방법, 판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논리이다. 의견의 대립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흔히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토론이 논리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토론 자료를 통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감정적 호소에 의지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료1(이라크전 파병, 우리의 선택은)

PG(전 유엔대사): 한미동맹이 깨진다든지 약화되면 대한민국의 평화가 약화됩니다. 또 우리 경제가 약화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젊은 분들 경제 약화되면 취직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맘대로 옷도 입고 머리도 마음대로 물들이고 있고, 나도 좋아해요. 그런 자유도 없어집니다.

자료2(이라크戰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

KG(민주당 국회의원): (생략) 김○○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미국한테 이것 좀 해줘라고 그랬을 때 미국이 잘해주겠느냐 그러지만 지금 그나마도 안 하면 미국이 어떤 일을 저지르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단히 선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우리의 국가 이익도 위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 그리고 유럽에 있는 우리 동포, 해외 지사, 상사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서 중간리인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3억의 이슬람 사람들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는 집단으로 몰리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요르단에서 통신원이 누가 당신네 나라의 이라크전에 파병을 하나 그랬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성미가 대단히 불같습니다.

자료3(이라크전 파병과 한미관계)

민경호(배심원: 통일연대 사무처장) : 저도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생략) 이 과정에서 이라크 남부가 오염되면서 수많은 기형아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어

린 아이고 그 아버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차마 끄적해서 제가 못하겠습니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라크에서는 미국에 의한 대량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 만약에 한국군이 파병한다는 것은 나중에 인류 문명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리라고 생각합니다.

HS(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우선 아까 배심원들 말씀 중에서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오느냐.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고 좋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해서 이해에 도움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명분과 정당성을 얘기할 때 이런 감성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위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면, 우선 <자료1>은 한미동맹의 약화에 대한 결과를 방청객의 취직에 대한 걱정이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소망 등 감정적 요소를 이용하여 주장하고 있다. <자료2>는 “대단히 서글프다”, “심각하다” 등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적 반응을 주장의 전면에 노출하여 동감을 유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료3>의 경우는 감정적 호소의 전형적인 경우인데, 전쟁 피해자의 사진을 통해 토론 참여자의 감정적 변화에 따른 입장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Chung(1992)의 논의를 빌면 사고의 표현에 있어서 ‘논리’보다 ‘감정’을 많이 사용하는 고맥락 문화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즉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 ‘논리’보다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신념의 결과이다. 물론 설득이 이성과 감정의 양면에 호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은 절대 부인할 수 없지만, 대립된 의사를 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토론의 특성상 한국 토론 문화에서 보이는 감정을 이용한 주장의 양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2. 타당성이 약한 논거의 사용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하는 내용으로서의 논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논거이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통계, 사례, 실례, 전문가의 의견, 관찰자의 증언 등이 있는데 반드시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이 검증되어야 한다. 논거의 타당성은 논거가 뒷받침하는 핵심 주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으로 주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 등을 타당성이 낮은 예로 들 수 있다. 신뢰성은 해당 논거의 일관성에 대한 것이다. 주장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되어도 같은 증거력을 보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출처의 정확성과 신빙성도 반드시 검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논거가 갖는 힘은 보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반론의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자료4(이라크전 파병, 우리의 선택은)

LC(○○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그리고 CNN폴. 여론조사 보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어디냐, 이라크냐 북한이냐를 놓고 볼 때 북한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생략)

자료5(이라크戰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

KJ(사회자): 안○○ 의원께서는 이라크의 바그다드까지 갔다 오셨는데, 지금 당론이 분명히 있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AY(한나라당 국회의원) : (생략) 한미 동맹관계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수준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미온나라든가 리처드 기어 같은 배우들이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하원 원내총무까지, 원내총무인 로빈 쿡이 원내총무직을 사임하면서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저는 이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라도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6(이라크戰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

CW(한나라당 국회의원): (생략)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도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가서 뽐아봤어요. 무슨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티즌을 상대로.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72.82%가 나왔어요. 우리 네티즌들이. 명분없는 전쟁 파병반대가 28.78%가 나왔어요. 우리 국민의 거의 72%가 파병을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생략)

KG(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아까 조OO의원께서 인용한 여론조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디어 다음 핫이슈 토론 이걸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이게 20,30대 네티즌들이 한 줄 이는데, 공병대까지 포함한 전투부대를 파견하자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가 34.8~35.2% 근처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지난 2,3일 동안.. 아마 국회에서 이라는 동안 조금씩 올라가는데 40%가 넘어가질 않고요. 제가 주장하는 의료 부대만 보내자는 것은 24.4, 24.2, 28% 정도를 유지하고 공병대까지 보내자는 것은 21.4, 22.9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국민의 대다수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위의 사례는 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4>는 CNN폴, 여론조사 등과 같이 통계 자료의 시행 시기와 출처,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미국 사람의 인식'과 연관시킴으로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자료5>는 전쟁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마돈나', '리처드 기어'와 같이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타당성이 결여된 인물의 주장을 이용하였고, '영국 하원 원내 총무의 특정 행동'을 한국군 파병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세계적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자료6>은 양당의 국회의원이 제시한 파병 찬반에 대한 설문 결과가 상반된 경우로 특정 일간지의 인터넷 사이트와 특정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설문 조사를 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특정 매체에 대한 표본의 제한적 접근 등 표본의 선정과 설문 조사의 과정 모두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파병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입장의 논거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한국 토론 문화의 양상은 Hofstede(1984)의 '모호성 회피'에 대한 논의로 한 단면을 해석할 수 있다. 토론의 규칙과 형식을 만든 서구의 문화는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참을성이 부족하고, 명료하고 직접적인 언어적 표현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한다. 반면에 한국의 문화는 명확한 언어에 대한 중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모호함과 불확실성과 관련된 언행에 대해 보다 참을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위의 사례들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근거들도 한국의 토론 문화에서는 충분히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의 예인데, 국어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논거 제시의 양상은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문화의 측면도 있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 교육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람직한 토론 문화의 형성에 논증에 대한 기본적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아래의 표는 미국토론협회(American Forensic Association)에서 사용하는 토론 판정표인데, 두 번째 항목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증거력'임을 알 수 있다. 즉 '증거력'이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 '논리성' 등과 동일한 층위에서 판정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토론 문화에서 '증거력'에 어느 정도의 위상을 부여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판정 기준	토론자 성명					
	찬성자 ①()	찬성자 ②()	찬성자 ③()	반대자 ①()	반대자 ②()	반대자 ③()
①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						
② 자신의 입장에 대한 증거력						

③ 논리성 (타당성, 오류)						
④ 상대의 입장에 대한 논박						
⑤ 발표력 및 태도						
판정 결과						

〈표5〉 토론 판정표

3. 개인적 권력 사용

토론은 '싸움'이라는 속성을 지니며 이러한 싸움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역시 힘이다. 그런데 토론에서 요구하는 힘은 철저히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토론 양상을 보면 힘의 원천이 '논리'가 아니라 연령, 성별, 지위 등 개인의 속성인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토론의 장 외부에서 작용하는 개인적인 권력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토론의 장 내부에 그대로 반영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료7(이라크戰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

OC(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생략) 양심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도덕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한민국이 도덕적 명분을 가질 때 도덕적 지위를 점할 때 전쟁의 위험성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KG(민주당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오〇〇씨 말씀을 제가 상당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이렇게 민족적 자존심과 주체의식이 강한 것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료8(이라크전 파병, 우리의 선택은)

SS(사회자): 박 대사님께 반론기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오.

PG(전 유엔대사): 제가 유엔 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유엔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9(이라크전 파병, 우리의 선택은)

PS(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51조에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KY(한나라당 국회의원): 제가 국제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자료10(이라크전 파병과 한미관계)

LJ(대사): 사실은 저도 국제법을 거의 평생 공부해온 사람인데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11(이라크戰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

KG(민주당 국회의원): (생략)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북핵 위기와 같은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건너 가서 쓸데없이 비즈니스를 합니까? 우리 조○○ 박사나 옆에 있는 김○○ 박사. 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셋 다 정치학도입니다.

구체적인 실례에 의하면 우선 <자료7>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연령이라는 속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비난한 경우이다. <자료8>에서 <자료11>까지는 모두 자신의 사회적 지위, 학위, 과거 경력 등을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는데 이용한 사례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문화는 한국 토론 문화의 대표적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문화적 해석으로는 Hofstede(1984)의 '권력 거리(Power distance)'에 대한 논의가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는 그의 분류에 의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의 연령, 성별, 세대, 지위 등의

속성에 의해서 차이가 형성되는 권위주의적 특성의 ‘고-권력 거리’ 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토론의 공정성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적 차이가 부각되어 상호작용에서 직접적인 힘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힘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 토론 문화를 점점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승리’, ‘예절’의 개념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이다. 토론의 공방에서 ‘승리’의 기준에, 주장하는 말에 대한 내용의 논리성의 여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됴됨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말에서는 이겼지만 ‘예절’에서 점수를 잃어 결론적으로 패한 것처럼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말과 사람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동양의 문화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뒤에서 다룰 ‘비난과 비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4. 내용 비판보다 사람 비난

한국 토론 문화가 갖는 고질적인 양상 중에 한 가지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즉 주장의 내용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나 오류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 특히 특정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의 태도나 경험 등을 문제삼아 심리적 제압을 시도하는 양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자료12(이라크전 파병, 우리의 선택은)

방청석 의견 (CY: 00대 경제통상화부): 저는 지금 출연하신 여섯 분의 패널들과 그리고 손석희 진행자님께 여쭙겠는데요. 진정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또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신다면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시위를 할 때 한번 같이 나가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과연 여기 계신 분들께서 촛불시위를 하실 때 참여를 한번 해보셨는지.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분들의 느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SS(사회자):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일곱 사람이 다 대답할 만한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CY: 그러면 손석희 진행자께서는 참여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료13(이라크전 파병과 한미관계)

KJ(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생략) 바로 21세기는 시민의 세기입니다. 시민들이 힘을 뭉쳐서 이런 장거리 법칙을 무너뜨려야 하는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HS(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강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략)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라크 전쟁을 얘기할 때 강의실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료14(이라크戰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

CW(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들은 시시각각 이런 테러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고 그래서 남의 일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21세기 지성인으로서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미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GJ(사회자): 네, 핵심만 얘기해주시지요.

자료15(이라크戰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

KG(민주당 국회의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당의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당론으로 확실하게 파견하는 것을 지지했을 때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에서 어떻게 그 입장을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당을 나와야지요.

AY(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번의 경우에 저희 당이 분위기.....

KG(민주당 국회의원): 선택적 도덕관이라는게 제일 나쁜 겁니다. 필요할 때 도덕 주장하고 안 그럴 때는 말고 그러면 됩니까?

AY(한나라당 국회의원): 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구체적인 실례를 보면 우선 <자료12>는 촛불 시위에 대한 참석 여부를 문제 삼아 상대의 '경험'을 공격하였고, <자료13>은 원론적인 내용이라는 비판을 강의실 얘기라고 치부하면서 상대를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격하였다. <자료14>는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21세기 지성인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여 상대의 '지적 수준'을 문제삼았고 <자료15>의 경우는 '도덕적 자질'을 이용하여 상대를 정면으로 공격한 예이다. 이러한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과 말을 동일시하는 문화적 배경을 갖는다. 토론도 토의와 같이 집단 사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제압이 아니라 해결책의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와 논쟁을 함에 있어서 주장에 대한 내용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야지 그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곤란하다. 즉 모욕을 통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제압하여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토론의 기본 예절에도 어긋날 뿐더러 공동의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 목적 달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사적 의견과 공적 견해의 혼동

한국의 토론 문화의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가 대표하는 정당 등 집단 의견을 대변하는 양상이 눈에 많이 띈다. 이러한 사항은 자신이 토론에서 패배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이 패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토론의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철저히 차단한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합의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대결의 구도로 발전하는 양상은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자료16>은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료16(이라크戰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

KG(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길종섭 씨는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략) 그런데 아까 길종섭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당에서 찬성 의원을 삼십 몇 명을 골랐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아서 약간 부분적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가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제3의 이론입니다. 소위 옛날에 영화 제목으로 말하면 제3의 사나이 같은 겁니다.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위의 사례와 더불어 아래의 <자료17>은 '우리'라는 매우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이다. 본인은 다수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일체감'에 호소하는 감정적 전략을 선택하였지만, '우리'가 한국, 한국군, 토론 참여자로서의 개인, 토론의 장에 있는 방청객, 시청자, 참여자 전체인지가 불명확하여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

자료17 (이라크전 파병, 우리의 선택은)

LC(○○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우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생략) 결국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략) 걸프전이나 아프간전 우리가 참전하고 또 우리가 다 분담도 했습니다. (생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LC정유나 SK정유나..... 그러니까 그건 허눈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토론 문화의 양상은 집단주의의 경향이 강한 데 기인한다. Condon & Yousef(1975)는 자아와 집단 소속감 등을 문화적 가치 체계에 포함시켰는데, 한국의 문화에서는 자아의 개념을 자아가 속한 집단에서 찾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즉 그 집단이 부여한 직위가 개인의 정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집단의 목표는 개인의 목표가 되고, 집단의 가치관은 개인의 가치관이 된다. 최근 들어 개인주의적인

양상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특히 개인의 정체감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가 속한 집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Hofstede(1984)도 문화적 가치의 4차원 중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설명하면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와 개인의 성취에 가치를 두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은 견고한 사회 구조 내에서 특징화되며, 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따르고 상호의존적이 되도록 기대되어 진다라고 설명하였다. Chung(1992)도 고맥락 문화의 특징을 구분하면서 집단의식에 가치를 두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토론 문화에서 집단주의는 여러 기준 중에서 그 문화적 색채가 가장 강한 것 중의 하나이다.

6. 토론 규칙의 경시

토론은 규칙이라는 속성 때문에 '게임'이나 '스포츠'에 비유되어 설명되어지기도 한다. 즉 토론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고 이러한 규칙의 준수 여부는 토론의 승패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대에 대한 비난 금지 등 예절 차원의 규칙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시간과 순서에 대한 엄수, 사회자의 진행과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는 것 등 절차상의 규칙을 말한다.

김광수(1991)에서는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설명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2인 1조의 토론 형식을 하나의 예로 들었다. 이렇듯 토론에는 명백한 순서와 시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주어진 시간에 입론을 하고 또 상대의 주장을 잘 듣고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여 질문 및 반론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토론에 질서를 부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필수적이다.

긍정측 제1 입론	8분
부정측 반대 질문 및 제1 반론	12분
긍정측 반대 질문 및 제2 입론	12분
부정측 반대 질문, 제2 반론 및 요약	12분
긍정측 반대 질문 및 요약	4분
	(48분)

〈표6〉 토론의 절차 (예시)

TV토론의 성격상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편정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편정을 실시하지 않고, 발언의 기회와 시간도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규칙을 경시하는 태도로 인해 토론의 진행에 질서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료18 (이라크전 파병, 우리의 선택은)

KY(한나라당 국회의원): 문자상 명확하지요.

SS(사회자):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섯 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립니다. 발언 기회 드릴테니까요. 박 대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PG(전 유엔대사): 제가..... 테러와의 전쟁도 자유와 독재와의 전쟁입니다. (생략)

SS(사회자): 알겠습니다. 박 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박 위원장님 기다려 주세요. 제가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이○○교수께만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LC(○○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자위권 행사를 근거로 대시는데..... (생략)

SS(사회자):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에 말이 이어지면 이걸 다음 토론으로 못 넘어가니까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자료19 (이라크전 파병, 우리의 선택은)

LC(○○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미국의 신세를 말씀하시는데..... (생략)

SS(사회자): 자, 잠깐만요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교수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생략) 이○○교수님 말씀 정리되셨죠?

LC(○○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아니 조금 제가.....

SS(사회자): 마무리해 주세요.

LC(○○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차 장군님께서 전설공병이기 때문에..... (생략)

SS(사회자): 1분 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LC(○○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30초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SS(사회자): 이○○교수님 이제 마무리 해 주세요.

LC(○○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네, 비전투 부대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략)

SS(사회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쳐주시시오, 그쳐 주십시오. 오늘 토론이 이렇게 되면 진행이 안됩니다. 앞으로 발언시간은 1분반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SS(사회자): 박 대사님 말씀해 주시죠.

PG(전 유엔대사): 저는 이 파병을..... (생략) 가만 계세요. 나 아직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어요. 30초요. 말씀 자꾸 막지 맙시다.

SS(사회자): 박 대사님 이제 좀 정리해 주실까요?

PG(전 유엔대사): 됐습니다.

<자료18>은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주장을 펼쳐 사회자가 애를 먹으면서 진행을 하는 사례이고 <자료19>의 경우는 사회자가 부여한 정해진 시간을 무시하고 또 제재하는 발언 역시 무시하고 계속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양상은 의사소통에서 특정 규칙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경험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 문화에서 '규칙'이 갖는 의미를 경시하고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양상이다.

IV. 토론 교육의 내용: 태도 교육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실제 토론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토론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여섯 가지의 변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서 의사소통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분법적 구분이 목적이 아님을 전제했듯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바람직한 토론 문화'에 대한 판정의 기준이라기보다 현재 한국의 토론 문화의 좌표를 짚어 보고 국어교육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토론에 임하는 '태도'의 영역이다. 즉 올바른 토론을 위해 알아야 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식과,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맞게 토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토론'을 바라보는 명확한 관점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 참여자로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효과성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화간 의사소통 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논리, 언어적 유창성, 명확한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의 대표적 산물인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그대로 수용함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 의사소통 문화와 상충하는 점에 대한 적절한 해소 없이 내용과 틀이 별개인 현 시점에서는 더욱 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태도는 단지 바른 태도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장점으로써 고수해 나가야 할 사항을 비판적 안목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처한 토론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능동적 태도를 의미한다.

국어교육의 토론 교육 영역에서 학습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다루어야 할 6가지 영역으로서 본고에서 제시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논리와 감정'의 영역에서는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 '논거의 타당성' 영역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논거의 빈번한 사용, '힘의 원천' 영역에서는 논리가 아닌 개인적 권위의 영향, '비난과 비판' 영역에서는 내용보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의견과 집단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경향, '질서와 규칙'의 영역에서는 토론에서 중요한 규칙과 질서를 경시하는 경향 등이 올바른 토론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학습자가 개선해야 할 태도의 국면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6가지 영역 모두에서 토론의 본질적 속성이 요구하는 특정 의사소통 문화와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가 상충되는 단면을 찾으려는 시도로 인해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논의를 국어교육에 적용함에 있어서 단지 문화적으로 상충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무조건 오류로 치부하고,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강조하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국어 토론교육에는 이러한 인식의 틀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이에 근거하여 토론의 다양한 양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이해력과 분석력은 각종 토론의 상황적 변수에 의해 초래되는 의사소통 문화에 민감성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토론 문화가 이렇게 부정적이니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제3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지식의 차원보다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토론 문화의 기준에 현재 자신의 위치에 대한 방향 감각을 확인하고 해당 문화적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는 능동적인 태도와 수행 능력의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4. 2. 23. 투고되었으며, 2004. 3.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4. 3.

■ 참고문헌

- 강태완 외(2001),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광수(1991), “민주주의와 토론문화”, 『철학과현실』 제8권, 철학문화연구소.
- 김동민(1997), “TV토론하면 돈 선거 해결되나”, 『월간말지』 제133호.
- 김진섭(1998), “토론하기의 국어교육적 수용 연구”, 『어문학교육』 제20집, 한국어문교육학회.
- 김학수(2001), “우리 토론문화의 적들”, 『인물과 사상』 제33호, 인물과 사상사.
- 박용한(2002), “TV 생방송 토론 대화에서의 대화 전략 연구”,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용백 · 이주행(1993),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문학사.
- 임영환 외(1997),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Chung, J.(1992), “Electronic mail usage in low-context and high-context cultur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Condon, J. C. & Yousef, F.(1975),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Bobbs-Merrill.
- Hall, E. T.(1976), Beyond culture, NY: Anchor.
- Hofstede, G.(1983), “National cultures in four dimens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13: 46-74.
- Hofstede, G.(1984), Culture’s consequences. CA: Sage.

<초록>

한국의 토론 문화와 토론 교육

박재현

본고의 목적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 체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토론 문화 양상을 분석하고 토론 교육의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토론 교육이 단순히 토론 절차에 대한 지식의 제시와 토론 과정상의 오류에 대한 교정에 한정되지 않고, 토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토론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효과적인 토론 수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설계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토론 과정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의 원리에 존재하는 문화적 변인들을 의사소통을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한 이론들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토론의 문화적 변인들이 실제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방송 토론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어 토론 교육 영역에서 학습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의 대상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부정적 항목은 6가지이다. '논리와 감정'의 영역에서는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 '논거의 타당성' 영역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논거의 사용, '힘의 원천' 영역에서는 논리적 설득이 아닌 개인적 권위의 사용, '비난과 비판' 영역에서는 내용보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의견과 집단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경향, '질서와 규칙'의 영역에서는 토론에서 필수적인 규칙과 질서를 경시하는 경향 등이 토론 교육의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핵심어】 토의, 토론, 토론 교육, 토론 문화, 문화간 의사소통,

<Abstract>

The Debate Culture of Korea and Debate Instruction

Park, Jae-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pects of Korean debate culture in the basis of the theories of cultural value systems and to provide the principles for the debate instruction. In the interests of developing more about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debate instruction, how cultural value system affects the aspects of debate communication was the focus of the study.

The cultural variables which are revealed in the debate communication were reviewed through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ies and the 3 TV debate programs were analyzed to examine how those cultural variables are associated with real debate communication.

The results revealed 6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veloping of debate instruction as follows. 1) logic and emotion, 2) validity of argument, 3) logical expression and personal authority, 4) criticism and blame, 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6) order and rules.

【key words】 discussion, debate, debate instruction, debate culture, intercultural communication